

# 제주 무가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소고(小考)

이 나 미\*

## 국문초록

인류와 세상의 기원을 무(무당)의 입을 통해 전한 제주도의 서사무가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를 융 분석심리학적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는 인간적인 측면과 성스러운 측면을 동시에 갖는 신들에 관한 신화이다. 세 신화를 성스러운 결혼, 부모 콤플렉스, 윤리적 측면, 신성성, 창조성, 기원으로의 회귀 등 다양한 심리적 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런 화소들을 북아메리카의 샤머니즘이나 수피즘, 탄트라 이즘 등 영성과 관련한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는 종교제의와 비교했다. 이들 신화에 나타난 심리적 상징과 과정들을 이해하고 확충하는 작업은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을 때 인간 정신이 어떻게 의미를 찾고 새롭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중심 단어** : 삼공본풀이 · 분석심리학 · 제주도 무가.

## 서 론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우신예찬(Encomium Moriae, Eloge de la Folie)에서 어떤 학문도 없이 자연의 본성이 그들을 이끌었으며 자연의 신비를 감히 의심하지 않고 세계와 우주의 비밀스런 이치를 탐색하지 않은 채 살았다고 하는 황금시대를 믿었던 그리스인들의 신화적 상상력을 소개

접수일 : 2017년 4월 14일 / 심사완료 : 2017년 6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4일

\*융학과 분석가, 이나미심리분석

한 바 있다.<sup>1)</sup> 이런 미분화된 시대의 모습은 그리스인들의 믿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태초의 신화세계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자연 혹은 대상과 주체가 혼용된 신비적 융합(Participation mystique)의 세계다. 신화적 상상력은 개인과 사회의 차이를 넘는 공통분모를 보여준다. 용은 이런 신화와 관련된 부분을 역사적 진실을 넘어선 정신세계에 속한다 했다.<sup>2)</sup> 또한 신화적 상상력이 어떤 민족의 역사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창조적인 연속적 세계(*creatio continua*)라는 관점을 견지한다.<sup>3)</sup>

창조신화는 한 문명이 생성되고 소멸될 때 통일성과 설득력이 담겨 있는 중요한 담론으로, 단순한 권위적 존재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고 문명을 만들며 변화시키는 열망을 담고 있다.<sup>4)</sup> 존재의 시원과 자연, 현실적 상황을 등장시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방향성을 갖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계의 신화적 단초는 그리스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요순시대, 한국의 경우는 역사책에 등장하는 단군왕검과 삼국시대 뿐 아니라, 활자가 사용되기 전 만들어져 구전되는 본풀이 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신화들 중 제주도의 무속 신화들은 유교와 불교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는 점에서 고대 이전의 생생한 상상력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신화들 중에는 곳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무조신의 설화로 신격에 따라 그 내용은 각각 다르다. 초공 이공 삼공에겐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가, 삼승할망신에겐 삼승할망 본풀이가 있고, 각 마을의 신당에는 그 신당의 본풀이가 있는데 이는 신의 출생부터 역할과 신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우여곡절을 설명해준다.<sup>5)</sup>

본고에서는 제주도 설화 중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에 들어 있는 심리적 의

1) 에라스무스 지음/강민정 옮김(2008) : 《바보 신 모리아, 어리석은 현자들을 비웃다 : 우신예찬》, 서해 문집, 서울, p75.

2) Jung CG(1970) : CW.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pp9-10.

3) Jung CG(1977)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p518.

4) Campbell J(1991) : *Creative Mythology : The Masks of God*, Penguin Compass, New York, p5.

5) 현용준(1992)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서울, p15.

미를 개괄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다른 신비주의 종교와 간단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신화는 고등종교와 정치사회적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물의 신화들에 비해 신화의 고태적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sup>6)</sup> 따라서 인간의 원형적 심리를 읽어내는 작업이 다른 의식적 윤색과 변형을 거친 장르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본풀이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스런 상황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낸 등장인물들이 운명에 굴하지 않고 포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서사가 펼쳐진다. 대부분의 내담자가 어려운 현실과 나약한 자신에 대해 호소하며 심리분석을 시작하게 된다. 분노, 원한, 좌절, 무기력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가는 확충이란 작업을 종종 펼치게 된다. 그러나 확충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신화와 민담들은 대부분 서양이나 중국 등 외국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마음 깊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또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한국의 신화는 상당 부분 유교나 불교의 색채가 강해서 원형적인 배열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윤리적 판단이나 정신 역동적 해석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제주의 무가들은 그런 의식적 변용과정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해석과 확충에 어울리는 많은 재료들을 갖고 있다.

제주 무가를 분석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기존의 작업은 이나미의 제주도 삼승할미와 마고여신에 대한 연구,<sup>7)</sup> 이광자의 원천강 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sup>8)</sup>과 또 김영희의 무속신화 칠성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이 있다.<sup>9)</sup> 황명숙의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sup>10)</sup> 등이 있다. 신화는 아니지만, 박영선은 “민담 <내 복에 산다>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삼공본풀이와 비교하면서 열등한 것과 다시 만나는 고통스런 작업을 통한 자

6)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pp592-593.

7) Nami Lee(2009) : “Reflections on Mago, a Goddess in Korea : A Creator Symbol in Korean myth”, 《심성연구》 제24권 제2호 pp151-173.

8) 이광자(2014) : “원천강 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심성연구》 제29권 제1호 통권 제48호, pp46-47.

9) 김영희(2015) :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제30권 제2호, pp111-144.

10) 황명숙(2015) :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제30권 제2호, pp145-186.

기실현과 집단의식의 변화를 분석해 놓았다.<sup>11)</sup> 이광자는 원천강 본풀이에서 주인공 탄생의 신화소와 동물과 자연의 보살핌에 의한 성장모티프, 입문의례적 과제들에 주목하여 삶의 목적의미를 찾아가는 신의 여정에 주목했다. 황명숙은 주인공인 가문장 아기의 여성성과 자기 찾기를 통한 개성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김영희는 칠성신의 치유과정과 분열된 자아의 통합에 주목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세 본풀이에 대한 세밀한 개별적인 상징의미에 대한 연구보다는 세 본풀이의 유기적 배열과 역동의 이해와 타종교의 신화적 요소와 이야기의 신비체험에 대한 짧은 개괄적인 비교와 확충을 통해 세속적 질곡이 곳이라는 제례와 무가의 전승을 통해 어떻게 영성적 차원으로 발전하며 참여자의 개성화 과정에 어떤 심리적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해 본다.

## 본 론

### 1. 제주도 본풀이의 등장인물과 구조

신이 등장하는 제주도의 본풀이에는 각각 신의 이름과 직능들이 있다. 현용준은 이들 주인공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고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는 이런 본풀이들 중 중요하게 전승되고 현재도 참여하는 의식이다. 현용준이 채록한 당산 본풀이, 즉 공동체의 기원에 대한 곳의 종류와 신의 명칭과 그 기능들은 표 1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곳이란 제상 차림을 크게 해서 심방 여러 명이 징, 북, 팽과리(설쉐), 장구 등 악기를 치며 가무를 하면서 본풀이를 직접 춤과 노래를 통해 구현하는 규모가 큰 의례이고, 비넘이란 심방 하나가 악기를 쓰지 않고 요령만을 흔들며 몇 시간에 끝내는 소규모의 축원이다.<sup>12)</sup> 곳에는 4~5명의 심방이 연속적으로 하는 종합제인 큰 곳과 작은 곳이 있다. 큰 곳에는 초감제, 초신맛이, 불도맛이, 일월맛이, 초공/이공/삼공 본풀이, 시왕맛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이 있고, 작은 곳에는 귀양풀이, 성주풀이, 영감놀이, 산신맹감, 칠성제,

11) 박영선(2010) : “민담 <내 북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42호, pp163-193.

12) 현용준(2007) :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제주, p21.

불뚝제 등이 있다. 당곳에는 영등굿, 토산당 본향 풀이 등과 단골심방이 개인적으로 초청되어 굿을 하는 각 가문의 조상신본풀이가 있다.<sup>13)</sup> 본풀이는 단순히 심방에게서 신의 내력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을 모셔놓은 무제에서 무악기의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본은 본초(本初)의 약어라고 볼 수 있다. 본은 신의 내력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解)의 명사형으로 해설, 해명, 해석 등의 뜻이 있다.<sup>14)</sup>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는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결국 소나타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구조이고, 신들이 종적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폰프란츠가 언급한 창조신화의 전형적인 사슬구조<sup>15)</sup>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풍요로움과, 부족함,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나눔, 즉 정반합의 변증법이라는 모티브가 초반부터 등장하여 전개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주되고 때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처음부터 결말을 예측하게 만드는 순환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 무가가 오랜 역사동안 왜 하나의 묶음으로 굿판이 벌어져 왔는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할 것이다. 세 무가의 여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가족의 울타리에서 쫓겨나지만,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세 무가 모두 영웅적인 주인공에 대한 반 영웅적 인물(anti hero)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주인공이 무조신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플롯들을 완성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세 주인공은 모두 자신들의 고통, 좌절, 분노를 딛고 가해자들과 함께 무조신이 되는 화해와 치유의 장을 펼친다.

## 2.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의 기본 열개

초공 본풀이의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석가여래, 할머니는 석가모니, 외할아버지는 천하 임정국 대감, 외할머니는 지하짐진국 부인이다. 임정국 대감부부는 상백미, 중백미, 금 은, 검은 소를 준비해 황금산으로 떠나 백 근이 안되어 딸인 노가단풍 주지망왕 아가씨를 얻는다. 옥황상제의 분부를 받고 길을 떠나

13) 현용준(2007) : 앞의 책, pp6-7.

14) 현용준(2007) : 앞의 책, p17.

15) Von Franz ML(1995) : *Creation Myths*, Shambala Publications, Inc., Boston & London, pp289-327.

기 위해 조지맹왕 아가씨를 가두어 두고 떠난다. 이 때 초공의 아버지인 주자 대선생이 찾아 와 아가씨가 직접 준 쌀을 받았다고 고집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주자대선생을 집에 들이자 기어코 아가씨와 동침해서 임신하게 한다. 노가단 풍 조지맹왕 아가씨는 세 아들을 포태하니, 부모는 딸을 죽이려고 하다 차마 못 죽이고 내쫓게 된다. 아가씨는 여종인 느진덕정하님, 검은소와 길을 떠나 칼선다리, 애선다리, 등진다리, 조심다리를 건너고, 청수와당, 흑수와당을 건너 다 용왕국에서 나온 강아지 변신인 거북사자를 만나 수 삼천 바닷길을 건넌다. 마침내 고깔 귀와 장삼자락을 내놓아 자신이 동침한 부인임을 알리고 주자선생을 만난다. 주자선생은 벼를 두 동을 가져와서 까놓으라는 과제를 내 놓지만 참새들이 도와주어 불도 땅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아가씨는 차례로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 가슴으로 아들 셋을 낳는다. 아들 삼 형제는 열다섯이 되자 벼슬을 하러 갔지만, 삼천 선비들이 방해해 한다. 아들 형제는 배좌수 집의 배나무에 올려놓았는데 꿈을 꾸 배좌수가 도와주고 팔죽 장수 할머니의 딸이 도와주어 장원급제를 한다. 하지만 또 방해를 받아 조지맹왕 아가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버지인 주자 선생을 만나 어머니를 찾게 된다. 삼형제는 삼천천제석궁에 있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너사메나도령을 만나 어머니의 속곳을 차례로 들어갔다 나오는 일종의 의례행위로 사형제가 된다. 너사메나 도령은 북과 장고를 만들어 아가씨를 구출하고 삼형제는 쇠철이를 불러 칼을 만들어 무당의 기구를 만들고 삼신왕이 된다.<sup>16)</sup> 큰 아들은 본 맹두, 둘째 아들은 신맹두, 셋째 아들은 살아살축 삼맹두라고 했다. 맹두는 이 세 아들인 무조신한테만 붙이지 않고 무구인 손으로 들고 흔들여 올리는 종과 같은 요령, 늦으로 만들어진 6cm정도의 엽전 모양의 것으로 표면에는 천지문, 천지일월, 천문일월 등 한자가 음각되어 있는 산판, 직경 4cm 깊이 1cm의 늦제품으로 만들어진 술잔인 상잔을 뜻하기도 한다. 때론 신칼을 일컫기도 한다. 일본의 삼종신기는 거울, 구슬, 칼로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sup>17)</sup>

이공본풀이는 몹시 가난한 김진국이 아들 사라도령을 낳고 사라도령이 거부인 임진국의 딸 원강암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천꽃밭 꽃감관을 살러 오라는 옥황의 전갈을 받고 길을 떠났지만 임신한 원강암은 가는 길에 따라갈

16) 현용준(2007) : 앞의 책, pp126-150.

1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수 없어 제인장재에게 맡겨 놓는다. 사라도령은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 할락궁이라 이름붙이라 하고 길을 떠난다. 종살이를 시작한 원강암은 부인이 되어 달라는 제인장재에게 아기가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몸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둘러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된다.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콩을 볶아달라고 하면서 손을 눌러 아버지 이름을 알아낸 다음, 아버지가 준 얼레빗 한쪽과 메밀 범벅 세 덩이를 갖고 떠난다. 메밀은 천리둥이, 만리둥이에게 던져 주고 무릎, 잔등, 목에 차는 물을 건너 서천꽃밭에 다다른다.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만나 이미 어머니가 장자에게 고문을 받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 살려내는 환생꽃, 웃음웃을꽃, 싸움싸꽃을 받아 제인장재를 찾아간다. 집에 가서 웃을꽃, 싸울꽃, 수레멜망 악심꽃을 뿌려 일가친족을 모조리 죽인다. 어머니의 잔등이는 흑대밭에, 무릎은 푸른 띠밭에 던져져 있는 어머니의 뼈를 모아 놓고 환생꽃을 뿌려 살려 낸다.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죽었던 자리에 제인장재 작은 딸을 죽여 묻어 두고 어머니를 모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는다.<sup>18)</sup>

삼공본풀이는 강이영성이서불이란 사내거지와 흥은소천궁에궁전궁납이라는 여자거지가 아이를 차례로 낳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첫 아이는 동네 사람들이 은그릇을 주어 은장 아기, 둘째 아이는 놋그릇을 주어 놋장 아기, 셋째 딸은 나무그릇을 주어 가문장 아기라 이름 붙이는데, 이들 부부는 가문장 아기를 낳고 나서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딸 셋을 불러 놓고 누구 덕에 잘 사느냐 하니, 하늘님, 지어님, 부모님 덕이라 하는데, 가문장 아기는 거기에 더하여 배또롱 아래 선그릇(임신선으로 추정) 덕으로 산다고 말해 검은 암소에 양식을 실어 내쫓긴다. 부모는 곧 후회하고 은장아기를 불러 데려오라고 하지만, 언니는 거꾸로 말해 이를 고약하게 생각한 가문장 아기가 청주냉이 몸으로 환생하라고 중얼거리자 지네가 된다. 놋장아기 역시 똑같이 하여 버섯 몸으로 환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들은 가문장 아기를 찾으려 하다 눈이 부딪쳐 봉사가 된 후 서서히 거지가 되고 만다. 한편, 가문장 아기는 마통이 아들 삼형제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첫째와 둘째는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나쁜 것만 부모와 손님에게 준다. 또 이밥을 해 주니 첫째와 둘째는 벌레 밥이라며 화를

18) 현용준(2007) : 앞의 책, pp159-166.



냈지만 셋째는 잘 먹어 가문장 아기의 마음을 산다. 마통이의 부모는 큰 아들, 둘째 아들에게 가문장에게 가보라 했지만 안 가고, 셋째만 가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둘은 다음날, 막내 마통이가 마를 파던 곳에 가서 금덩이 은덩이를 찾아 부자가 된 다음, 봉사인 가문장 아기의 부모를 찾아 눈을 뜨게 한다.<sup>19)</sup>

### 3.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의 심리적 이해<sup>20)</sup>

#### 1) 무조 신들의 불완전성과 대립의 시작

초공본풀이의 가계도는 다종교의 혼합이다. “성하르방님(조부)은 석가여래이고 성할마님(조모)은 석가무니(석가모니)이고 웨하르바님(외조부)은 천하임정국 대감이고, 초공 웨할마님(외주모)은 지아(지하)집진국부인이다. 초공 아방(부)은 황금산 도단땅 주자대선생이고, 초공 어멍(모)은 노가단풍즈지맹왕 아가씨”이다.<sup>21)</sup> 주지맹왕에는 자연과 여자의 성기의 의미가 들어있고, 주자대 선생은 외래종교를 암시하는 주자선생인 점이 흥미롭지만 가계의 모든 이들이 석가나 보살의 성스러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많은 실수와 도덕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초공아방과 어멍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공양을 드렸는데, 백 근에서 약간 모자라 아들이 아니라 딸이 된 것은 얼핏 가부장제의 흔적이며 남아선호사상의 여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완전하지 않은 창조의 시작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 모자라거나 생각이 모자라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자식이 태어난 다음, 진정한 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혹은 실패라고 보이는 (abortive) 신들의 탄생은 때로는 거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괴물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 크거나 너무 느린 존재로 묘사된다.<sup>22)</sup> 이공 삼공 본풀이의 주인공들 역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설정을 어려움을 극복 해내는 영웅적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집단 의식의 투사라는 사회심리학적 해

19) 현용준(2007) : 앞의 책, pp167-175.

20) 세 무가를 따로 분석한다면 다루어야 할 상징들이 매우 풍성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세 무가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화소와 심리적 의미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세밀한 상징에 대해 보다 정직한 분석은 후속 연구에 미루어 두고자 한다.

21) 현용준(2007) : 앞의 책, p127.

22)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262-288.



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회의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하지 않은 여성성은 때로는 미성숙한 형태로 멈춘 채 고착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불완전함 그 자체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자연의 전체 (a natural whole)”로서 더 풍성해질 수(flourish) 있는 것이다.<sup>23)</sup>

세 본풀이에서는 인간 대 신의 나라, 자국 대 외국, 여성과 남성 등 이분법적 대립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공본풀이에서도 가난한 김진국의 아들과 부자인 임진국 딸의 결합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역시 가난과 풍요로움이라는 긴장관계를 엮을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이공님이라는 신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하늘과 땅이 눈보라가 몹시 내려 소복히 쌓인 산딸기나무 덩굴이 무성한 길이 막혀 넝쿨을 베어버리는 장면이 도입부이다.<sup>24)</sup>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존의 여지를 상상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어찌면 인간에게 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삼공본풀이에서는 부모가 모두 생존 그 자체가 불안정한 거지인 강이영성이 서불과 홍은소천궁에궁전궁납이 결혼해 세 딸을 낳는 것으로 시작한다.<sup>25)</sup> 강이영성이서불은 영적인 혹은 불교의 세계, 홍은소천궁에궁전궁납은 물질 혹은 세속의 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꼭 그렇게 그 함의를 가두어 이해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모두 두 개의 세계가 결합되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구조다. 이런 이항관계는 전 세계의 신화에서 모두 관찰된다. 때로는 기독교의 예수와 적예수(Antichrist), 혹은 야훼와 사탄의 관계처럼 극단적인 양극화한(polarization) 의식의 영역에서 인지할 수 있는 윤리적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쪽은 적극적이고 한쪽은 소극적인, 한쪽이 넘친다면 한쪽은 부족한, 한쪽이 보다 인간적이라면 한쪽은 보다 덜 인간적인, 한쪽이 보다 삶에 가깝다면 한쪽은 보다 죽음에 가까운 쪽 등으로 묘사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sup>26)</sup>

이런 대칭적 상들이 신의 형태로 변용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수적이다. 신들이 태어나기 위해 우선 안팎의 상황이 무르익어야 할 필요부터 있는

23) Neumann E(1994) : *The Fear of the Feminine and other essays on feminine psychology*, Bollingen Series LX: 4,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9.

24) 현용준(2007) : 앞의 책, p161.

25) 현용준(2007) : 앞의 책, pp167-169.

26)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p93-106.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상백미, 중백미, 금, 은, 검은 소를 대감부부가 준비해야 한다. 농경과 가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대에 쌀과 소는 산업의 근간이다. 금과 은은 이런 경제생활 이상의 문화적 가치를 의미한다. 신들의 세계에도 준비되지 않는 시작은 없는 것이다. 한데 열심히 모았지만 백 근이 되지 못한다. 완벽한 절대세계에 미칠 수 없는 인간세계의 한계를 신들의 세계에 투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이별과 혼자 남음

이들 본풀이는 모두 영웅 신화의 기본적인 열개인 버려짐, 혼자 남음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옥황상제의 분부 때문에 부모가 길을 떠나 혼자 남게 된 조지맹왕아기씨가 주자대선생과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후, 부모에 내쫓겨 아들 셋을 혼자 낳아 키운다. 이공본풀이에서도 역시 옥황상제의 분부 때문에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헤어지게 되고 아버지를 한번도 보지 못한 아들인 활락공이가 어머니와 남게 된다. 삼공본풀이에서는 셋째 딸이 부모보다 자기 덕을 더 강조하는 바람에 쫓겨나게 된다.

응은 이런 버려짐이 아이 원형에서 새롭지만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신비하면서도 기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누미노제를 경험하는 기회라고 묘사했다. 의식은 이런 경험을 쉽게 표현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 무의식에서는 버려짐에 따른 상실과 공백을 공포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의식에서는 이런 과정을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홀로 남아 불안, 외로움, 두려움 등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의 독립된 개성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sup>27)</sup>

혼자 남음은 학파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적 발달과제이다. 개인이 탄생해서 성숙한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성스런 뒷바라지 못지않게 단호하게 독립을 준비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가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밧줄을 끊어야 한다. 물론 이런 분리의 과정은 때론 혹독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독립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초공 본풀이에서 임신한 딸을 가두어 두고 떠나는 장면, 또 아버 모르는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은 임상에서 얼마든지 그 변주를 찾아 볼 수 있다. 자녀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부모

27) Jung CG(1969) : CW 9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pp168-169.

들이 보이는 격한 분노와 휘방이다. 이공본풀이에서는 부잣집 딸이 부모들이 원하는 남편에게 시집가는 대목이 있다. 한데 이 남편은 옥황상제의 부름이라는 더 큰 인생의 과제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멀리 사라진다. 부자 부모와 헤어지는 것도 모자라 남편과도 헤어져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철저한 분리다. 게다가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아들마저 떠나보낸다. 땀 흘려 스스로 성취하기 보다는 관계지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아직 미숙한 여성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고독하고 힘들지만 혼자 살아야 결국 신적인 경지를 흉내라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별과 혼자 남는 상황은 중국 관세음보살신화 중 하나인 묘오 산(Miao Shan) 신화의 버려짐, 박해, 화해를 통한 구원 모티프에서 매우 유사하게 펼쳐진다.<sup>28)</sup> 묘오 산도 본풀이의 등장인물 못지않은 갖은 버려짐, 이별, 박해의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부모와 사회를 용서하고 화해와 구원의 경지로 나아가 관세음보살로 다시 태어난다.

삼공본풀이에서는 부모나 남편에 의한 수동적인 독립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독립을 선언하고 나선다. 이런 서사구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의식의 세계의 권위적 가부장제에서 자연스런 삶을 부정당한 한국 여성의 무의식 세계의 힘일 수 있다. 그러나 신화에서 나오는 여성들은 꼭 현실의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상처받고 억압받고 있는 아니마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에게 투사하는 남성들의 숨은 희망일 수도 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 혼자 견뎌서 고난과 싸우겠다는 비장한 결기는 성차나 연령 고하를 떠나 모든 이들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심리적인 과제다.

움은 철저하게 외로운 상태에서 혼자 남고 싶어 하는 성스러운 이기주의(sacred egoism)가 실은 인간의 자연적 힘 중 가장 건강하고 센 자원이라고 말한다.<sup>29)</sup> 고립되고 버려진 채로 남아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본성, 가족에게 진 빚, 착한 이웃들의 중요함, 그리고 자연의 숨은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3) 신들의 우여곡절과 역경

신들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못지

28) Boucher S(1999) : *Discovering Kwan Yin : Buddhist Goddess of Compassion*, Beacon Press, Boston, pp25-28.

29) Jung CG(1977)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pp341-342.

않게 어떤 어려움도 성실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썩썩 숨는 즈지맹왕아기씨를 주자대선생이 기어코 찾아 내어 임신을 시킨 후, 다시 아기씨를 버린다. 아기씨의 친정부모는 버림받은 딸을 용서 못하고 내쫓아 버린다. 제주도의 본풀이도 일공, 이공, 삼공 본풀이로 나뉘고 다시 또 각각의 굿이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초공본풀이는 공선가선, 날과 국섬김, 집안연유 닦음, 들어가는 말미, 공시풀이, 본풀이, 주잔님김, 비념, 산 받아 분부사뵐, 다음 재차로 념김의 단계가 있다. 또 초공맞이는 초감제, 추물공연, 초공질침로 크게 나뉘고, 이공과 삼공본풀이 역시 비슷한 체제로 여러 단계를 거쳐 신을 맞이하고 내보낸다. 좌우뚝질 돌아봄, 작대기로 치기, 은파비로 파기, 발로 고르기, 쯤삼태로 치우기, 미레깃대로 고르기, 이슬다리 놓기, 마른다리 놓기, 나비다리 놓기, 서천강 연다리 놓기, 울궁기 메우기, 천왕낙화다리 놓기, 청너울다리놓기, 작도다리 놓기, 금부채다리 놓기, 칼선 다리 놓기, 애선 다리 놓기, 등진다리 놓기, 올은다리 놓기, 모욕상잔다리 놓기, 개천문다리 놓기, 울랑국범천왕다리 놓기” 등등의 복잡한 과정들이 등장한다.<sup>30)</sup>

이런 단계는 개인이나 집단의 내적 성장과정의 은유(metaphor)나 우화(allegory)적 표현으로 신화나 민담 뿐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관찰된다. 서양 근대 소설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테의 신곡에서도 천국(paradiso), 연옥(purgatory), 지옥(hell)이 각각 다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묘사되고<sup>31)</sup> 한국 고소설의 원류 중 하나로 17세기의 소설 구운몽에서도 팔선녀를 만나는 단계에서 주인공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등장한다.<sup>32)</sup>

이름은 유교적이지만, 결코 유교적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주자대선생에 비해 아기씨는 종과 검은 소와 함께 길을 떠나 칼선다리, 애선다리, 등진다리, 조심다리를 건너는 장면은 마치 작두를 타고 춤을 추는 장면의 기원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 심리적인 성장과 연결된다. 칼이 섰다는 것은 논리적인 단호함, 분리, 공격성을 의미한다. 애선다리, 즉 애타는 다리란 감정적 질곡을 의미할 수 있다. 등진다리는 부모, 혹은 집단과 등진다, 즉 심리적 분리를 의미

30) 현용준(2007) : 앞의 책, pp126-176.

31) Dante AB, Thomas G. trans.(1969) : *Divine Comedy*, Grossman Publishers, New York.

32) 김만중, 정규복 · 진경환 역주(1996) : 《구운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서울.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다리는 보다 성숙하고 분화된 인격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조심성을 뜻할 수 있다. 청수와당, 흑수와당은 푸른 물, 검은 물로 대비되는 색깔의 상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푸른 물은 엄청난 창조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검은 물은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알레고리로 다가온다. 인도자인 강아지, 혹은 거북 사자를 만나 주자선생을 찾아가는 장면은 인생의 힘든 여정에서 만나는 얼핏 보기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매우 의미가 깊은 숨은 조력자와 스승들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인간도 혼자 역경을 딛고 성장하지 못한다. 그가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 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인연들의 도움이 모자이크처럼 작용해 아름다운 직조물이 되는 것이다.

힘들게 만난 주자선생은 이번에도 아기씨에게 힘든 과제를 주지만, 참새, 즉 하찮은 미물에게 도움 받는다는 대목은 현실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찮아 보이는 이들의 숨은 도움과 공덕이 큰 스승과 조력자만큼이나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아기씨가 다시 남편을 떠나 혼자 힘들게 삼형제를 낳고 훌륭하게 키우는 대목은 거꾸로 삼형제가 혼자 남은 아기씨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남편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렵지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본인의 삶도 충실하게 산 여성들에게 어떻게 견뎠느냐 물어 보면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이 자신을 견디게 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도움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움을 주어야 했던 하찮은 대상이 다시 내게 큰 도움을 주는 상황도 신화와 민담에서 되풀이 되는 중요한 주제다. 아들 삼 형제 역시 삼천 선비, 즉 집단적 세계, 혹은 유교적 지배자들 혹은 지배이데올로기의 방해를 받지만 배좌수와 팔죽 장수 할머니, 악기의 신인 너사메나의 도움을 받게 된다.

배나무의 주인인 배좌수는 먹는 배, 혹은 사람의 배를 연상시키니 몸 혹은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팔죽할머니는 곡신, 혹은 나쁜 귀신을 쫓는 무당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더해 너사메나와 쇠철이란 신은 인간의 두 가지 문화적, 도구, 즉 악기와 무기를 쓰는 과정을 암시한다. 인간세계의 세 축, 신체적 영역, 영적인 영역, 심리-문화적 영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옥황상제의 명령이 젊은 부부를 이별하게 만드는 대목을 보

자. 권위적, 혹은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시작이다.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진보적인 젊은 세대의 충돌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라도령은 아직 아들과 아내를 건사하는 가장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원강암 역시 먼저 남편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저 인내만 하고 있다. 아직 기성세대와 맞설 수 있는 결기를 갖추지 못한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반대로 아들인 할락궁이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 이제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젊은 에너지를 뜻한다. 물론 진보적인 젊은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겁 많고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주는 메밀 세 덩이가 할락궁이가 역경을 넘어 아버지를 찾아갈 때까지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슬픈 죽음을 알려주는 현실적 원칙이자 어머니를 부활시키는 힘을 가진 도구인 꽃들을 아들에게 전수해 주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이 독립하는 그 날 까지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는 뜻은 물질적인 기본 뿐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젊은 에너지가 부조리한 현재를 개혁해서 미래를 다시 만들어간다. 할락궁이가 어머니를 되살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재인장재의 집안을 몰살시킨 후 신이 되는 과정이다.

삼공본풀이에서는 억압적 이념으로 왜곡된 효 사상을 거부하고 자기 삶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여성인 가문장 아기가 등장해 먼저 한 일은 거짓말 하는 언니들을 지네와 버섯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언니들이 변한 지네와 버섯은 공통적으로 어둡고 습한 곳에서 존재한다. 가문장 아기의 씩씩하고 독립적인 태도와 대조가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그림자 상에 가깝다. 독립을 반대하는 세력은 외부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도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존심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진정한 독립이 되는 것이다. 언니들을 변환시키는 대목을 내면적 성찰과 변환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마통이를 만나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밥을 지어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을 해야 자기의 짝을 찾을 수 있다. 보물은 절대로 앉아 있을 때 걸어 들어오지 않는다. 두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찾아가고 귀찮음과 성가심을 극복하고 나와 대상을 돌봐야 비로소 더욱 성숙한 내적 변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본래의 자기이지만, 보다 성숙한 자기를 만나게



된다는 패러독스는 자기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 지난한 성장과정을 통해 보다 큰 자기로 변환되는 개인의 성장과정과도 유사하다.

#### 4) 갈등의 해소와 통합

이공본풀이에서는 가난한 집 아들과 부잣집 딸이 결혼해서 태어난 귀한 부잣집 딸이 나쁜 재인장재에게 임신하게 되는 상황이 갈등구조 중 하나가 된다. 나쁜 재인장재는 물론 순진한 여성을 위협하는 가부장제적 현실의 여러 위험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를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나쁜 재인장재에 의한 임신은 여성들이 여러 원형적 심리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장면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부성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영원한 아버지의 딸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남성들이 여성에 투사하는 아니마상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경우도 있다. “신적이고 영원한 아버지 상의 딸(daughter of the eternal father)”로서의 작업완수를 위해 건강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sup>33)</sup> 물론 어떤 세속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초월한 종교적으로 희생하는 승화된 삶을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건, 자아가 자신의 무의식적 콤플렉스들을 의식화하여 주체적으로 전체정신을 지향해야 이런 고착에서 벗어나 성장의 다음 단계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 부부가 합심해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신들의 기원이라면, 이공본풀이에서는 모자가 혼자 남아 고초를 겪는 어려운 상황이 신들의 시작이다. 신적인 존재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꺾박받는 상황을 견딜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성스러움의 시작이란 의미다.

삼공본풀이에서도 거지부부에서 태어나지만 이들 부부에서 태어난 아기가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적선한 덕이다.<sup>34)</sup> 신화의 세계에 등장하는 공동체가 새로운 신의 탄생을 위해 합심하는 것으로 작은 개인적인 비넛 같은 곳이 아니라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곳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되는 장면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사회인류학적 관점에서도 유용하지만, 옹의 개성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개성화 과정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충족만 목표로 하는 것

33) Neumann E(1994) : 앞의 책, p21.

34) 현용준(2007) : 앞의 책, pp167-174.



이 아니라 “신체와 영혼의 합일뿐 아니라 마치 도(Tao)의 개념과 같은 것”<sup>35)</sup>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외부의 세계와 자연, 더 나아가 우주와의 보다 성숙한 합일(Unus Mundus)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도입부터 넘지시 암시하는 플롯이다.

초공본풀이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주자대선생을 아기씨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는 대목이 있다. 또 아기씨가 낳은 아들 셋은 장원급제를 해서 다른 신들의 도움으로 죽은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기도 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배가 불러 사라도령을 못 쫓아간 원강암과 달리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결국 아버지를 찾고 역시 죽은 어머니를 살려낸다. 삼공본풀이에서는 눈이 먼 부모를 다시 찾아 눈을 뜨게 한다. 이런 재결합을 효도 사상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겠지만, 무기력하고 외롭게 만드는 낡은 모성성은 죽게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는 새로운 모성성은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낡은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그동안 낡은 자아가 만났던 모든 인연들을 새롭게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상징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낡은 과거는 버리고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자기가 조금씩 더 확장되고 성숙되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와 음악의 구조가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것은 통합과 완결을 지향하는 인간 심리의 원형적 배열의 반영이다. 물론 민담 중에는 어이없이 끝나는 것도 있고, 갑작스럽게 종결되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현대음악 같은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하는 미학은 무의미한 “어이없음”이 아니라 의미를 상상하게 만드는 “여운”과 “여백”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담과 신화의 전승자뿐 아니라 모든 창조적인 이야기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나 관객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나뉠대로의 방식으로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를 원할 수 있다. 너무나 치밀하게 완성된 이야기보다 오히려 성글게 만들어져 무언가 아쉽고 궁금하고 혹은 어이없게 만드는 통속적 구조가 의외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오래 받는 까닭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승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 5) 신성한 결합(hieros gamos)과 하나의 세계(unus mundus)

본풀이에는 소박하지만 양극의 상징들이 많이 등장한다. 부자와 빈자, 하늘

35) Zabriskie BD(1997) : “Ethics”, *Jungian Analysis*, ed. by Stein M, Open Court, Chicago and La Salle, Illinois, p413.

과 땅, 남성과 여성, 유교와 불교, 혹은 도교와 샤머니즘, 개인정신과 집단정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등의 이분법적 인물과 상황들은 극의 전개와 함께 통합되어 하나가 된다. 지지맹왕 아가씨와 어머니 원강암의 죽음과 부활이, 삼공 본풀이에는 나쁜 언니들의 죽음과 버섯과 지네로의 환생은 죽음이나 악한 세력을 수용하는 샤머니즘적 정신을 보여준다.

문제의 발단이 되는 “운명의 힘”은 본풀이의 서사에서는 의인화된 신인 옥황상제(초공/이공)로 구체화 된다. 조력자 역시 민담에서처럼 다양하게 등장한다. 느진덕정하님, 검은소, 거북사자, 참새, 배좌수, 팔죽장수 할머니와 딸, 너사메나도령, 쇠철이(초공), 제인장자, 원강암 어머니(이공) 동네사람들, 마통이 부모(삼공)들이다. 이에 대비되는 방해자로는 임정국대감/지하짐진국부인, 삼천선비(초공). 제인장재(이공) 언니들/형들(삼공)이 있고 희생자로는 삼천선비(초공) 제인장자와 가족 (이공) 언니들 (삼공) 이 있어서 장편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다가 때론 서로 그림자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단순한 이분법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주인공과 하녀, 남주인공과 머슴의 관계가 만드는 변주는 본풀이의 세계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신화나 소설 민담에 다양하게 등장한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 실수의 희극(Comedy of Errors)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쌍둥이와 종이 서로를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나<sup>36)</sup>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관계 등,<sup>37)</sup> 그 예를 찾자면 한이 없다. 이들 양극의 대립, 갈등, 화해는 모두 결국에는 통합된 세계를 위한 준비단계다.

여성성 혹은 남성 무의식의 아니마로 한 근이 부족해서 결국 여자로 태어난 지지맹왕 아가씨, 시기하는 가문장아기의 언니들, 배가 불러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원강암, 아버지인 제인장재에게 사로잡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제인장재의 딸, 지나치게 당당해서 미움받는 가문장 아기둥이 등장한다. 남성성 혹은 아니무스로 무책임한 주자대선생, 아내를 버리고 가는 사라도령, 미분화되고 배려없는 마통이의 형들, 낯선 일을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배좌수, 잘 놀지만 재주 있는 너사메나 도령, 칼잡이 쇠철이, 원수를 죽이는 할락궁이, 친절한 마통

36) Shakespeare W & Whitworth CW ed.(2003) : *The Comedy of Error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1-10.

37) 괴테 요한 폰 볼프강 지음 정서웅 옮김(2009) : 파우스트 1 민음사, 서울.

이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아니마 아니무스 발전의 사단계로 이들을 유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아니마, 아니무스의 성격들을 완상하는 것이 더 즐거운 작업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의식 상황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가설은 고풍에서 아주 구체화된다.

이들 주인공들이 인간적 현실을 던지고 무조신으로 변환하는 장면에서 꼭 필요한 준비작업에 성스러운 혼인(hieros gamos)이 포함된다. 현실세계에서 결혼이 구체화된 이미지라면 무의식을 만날 수 있는 꿈과 신화의 세계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런 성스러운 결합을 보여준다. 융은 폐와 심장의 색전증으로 인한 임사체험에서 이런 성혼의 신비한 장면을 경험했다. “신격(Godhead)안에 들어 있는 여성성(Malcuth)과 남성성(Tifereth)의 혼인이며 헤라와 제우스의 결혼장면인 동시에 희생양의 결혼식”같은 장면을 임사체험 중 만났던 바를 기록하고 있다.<sup>38)</sup>

폰 프란츠는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이라는 순환을 연금술 텍스트 코마리오스(komaros)에 등장하는 성혼의 이미지를 인용해 설명한다.“... 그들을 서로 결합하게 하라. 이들의 결합이 여러 빛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리니. 이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가 아니리니. 남성의 차원은 그의 짝인 여성의 차원과 같기에. 보라. 자연은 자연으로 보답하리니 당신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면 자연은 자연을 넘어서 서로에게서 기쁨을 느끼리라.”<sup>39)</sup>

융은 정신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모두 포함된 집단무의식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인위적 분별을 뛰어 넘는 동시성 원리의 하나의 세계(Unus Mundus)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sup>40)</sup> 본풀이에도 고대인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세계를 엿보게 하는 이승과 저승이 혼용이 되는 통일적 세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풍성하게 등장한다. 폰 프란츠 역시 코마리오스의 연금술서를 인용해 “하나의 세계(Unus Mundus)는 죽음 이후 부활이라는 신비 속에 일어나는 전체성의 초월적 경험이다.” 라고 설명한다.<sup>41)</sup> 본풀이에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다시

38) Jung CG. recorded by Jaffe A (1961) :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antheon Books, New York, pp293-295.

39) Von Franz ML(1998) : *On Dreams and Death : A Jungian Interpretation*, Open Court, Chicago and La Salle, p42.

40) Jung CG(1970)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767.

41) Von Franz ML(1992) : *Psyche and Matter*, Shamabala, Boston & London, p57.

체험하는 신화 속 주인공들의 혼인상징도 인간이 우주의 신비와 하나가 되는 초월적 경험의 이미지이다.

## 6) 황홀경의 공간

굿판은 음악과 춤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만드는 황홀경의 세계가 다양하게 변주되는 시공간이다. 배나무에 올라감, 너사메나 도령의 북과 장고, 쇠철이의 칼을 이용한 삼시왕 굿, 웃음웃음꽃, 씩씩웃음꽃, 수레멜망악심꽃, 환생꽃 등으로 벌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장면이나 봉사들의 잔치는 모두 영적인 황홀경의 구체화된 상징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때로 아름다운 황홀경도 될 수 있지만 끔찍한 악몽의 세계이기도 하다. 세 개의 본풀이에서 보여 주는 아름다우면서도 위협해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상황들은 현실세계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아름다운 연애의 끝에서 만나는 절망, 분노, 환멸 들은 허탈한 웃음과 싸움과 악심을 불러일으킨다. 본풀이에서는 이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두 꽃으로 구체화되면서 변환된다. 세속의 갈등이 신적인 영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암시다. 이런 무의식의 세계는 북과 장구가 치는 음악의 세계일 수도 있고, 눈 먼 채 즐겨야 하는 이른바 “봉사들의 잔치”일 수도 있다. 본풀이의 춤과 노래는 반복적인 운율과 박자를 타는 것, 상징적인 소도구들을 사용하고 불을 피우는 것 역시 탄트라 불교의 의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시작도 끝도 없으며 삭티(shakti)라는 여성적 불성을 더 경배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탄트라 밀교의 제의는 만트라 주문(Mantra Practice)의 형태로 치러지는데 보통은 반복적인 음절인 “Hare rama hare Rama… Hare Hare Krsna Hare Krsna… Hare Hare” 같은 단어들 을 반복한다. 이런 음을 반복하지만 호흡과 박자는 리듬을 타고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속도를 바꾸고, 몸의 여러 기관을 바꾸어 춤추듯 주문을 외운다. 또 인도의 전통악기의 음률에 맞추어 공연하듯이 만트라 주문을 한다.<sup>42)</sup> 다양한 종류의 염주나 상징 문양들을 배치거나 불을 피워 불에게도 경배한다.<sup>43)</sup> 본풀이 역시 반복적인 춤과 노래가락으로 참여자들에게 신성한 세계를 엿보게 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42) Johari H(1983) : *Tools for Tantra*, Destiny Books, Vermont. p1.

43) Johari H(1983) : 앞의 책, pp25-32.

이슬람의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즘에서는 신을 기억하기 위해 외딴 방에서 40일간 머물면서 오직 알라를 밤낮으로 부르면서 신적 황홀경에 빠지는 전통을 칼와트(khalwat)라고 한다. 칼와트 기간 동안은 해가 지고 새벽까지는 단식을 한다. 신비가들인 푸카라(fuqara)들은 이런 제례동안 신비체험을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주 동안도 하게 된다. 칼와트가 끝나고 외딴 기도실을 떠난 다음에도 이런 체험에 대해 기억하는 이들은 그림이나 조각 혹은 문자들로 자신의 체험을 남긴다. 이런 신비체험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이들은 푸투왓(futuwa)라 부른다. 이들은 솔로몬 왕을 자비의 지혜(Wisdom of Compassion)라 하고 시바 여왕인 빌키스(Bilquis)를 이상적인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의 영역에서 영원한 소피아, 즉 지혜의 여신으로 섬긴다.<sup>44)</sup> 신비체험이 예술작품을 남긴다거나 보다 지혜로운 영적 세계로 진입하는 하나의 통과의례가 되는 셈이다.

무의식과 만나는 황홀경의 세계는 아름답지만 때론 파괴적이고, 새로운 세계로 여는 문이지만 때론 주변과의 모든 문을 닫게 하는 암흑의 세계일 수 있는데, 이런 종교적 제식화(ritualization)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아가 현실세계에 발을 붙이고 파편화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세속을 뛰어 넘는 윤리적 상황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에서는 모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세속적인 상황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민담이나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을 들여 얻은 자녀이지만, 임신했다고 내쫓거나, 혼자 임신한 딸을 모르는 첩하는 냉혹한 부모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독립적인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 또는 자녀와 대립하는 부모의 모습들은 임상에서 확충으로 차용할 수 있는 좋은 모티프들이다. 냉혹한 아버지가 투사된 신의 이중적인 모습은 일신교에서는 사탄, 악마라는 대극을 따로 설정해서 절대신과 분리시키려 한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하는 아훼는 세상을 혼돈에 빠트리고 아프게 하고 전쟁을 저지른다. 인간의 고통을 멀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숨겨진 하나님(Deus absconditus)이다.<sup>45)</sup>

44) Bakhtiar L(1976) : *Sufi : Expressions of the mystic quest*, Thames and Hudson, London, pp94-95.

45) Jung CG(1977)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175.

샤머니즘적인 신화의 세계에서는 이런 신들의 이중적인 특징을 포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낸다. 일신교의 세계에서는 이런 신의 이중성 그 자체와 또 그 이중적인 신을 대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들이 보다 세련되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겪는 우여곡절 중에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냐”며 현실의 부모를 부정하는 대목까지 포함된다.<sup>46)</sup> 탄트라 밀교에서도 일종의 컬트처럼 모성, 혹은 성에 대한 숭배의 모티프가 등장하고 경배의 대상인 샹티가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단순한 에너지, 힘, 창조성의 우주적 원리까지 승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샹티는 보통 그녀를 잡고 있는 샹티만(shaktiman), 즉 힘을 갖고 있는 남성적 에너지와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그려진다. 샹티만은 우파니샤드에는 브라만(brahman)이라고 불리고, 이후에는 시바(shiva)로 불리면서 하나의 부성과 모성,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쌍을 이루기도 한다.<sup>47)</sup>

본풀이에 등장하는 부모 자녀간의 갈등과 독립 모티프는 현실 세계의 윤리적 체제를 뛰어 넘는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주자선생은 아이만 포태시킨 다음 아내를 떠나고, 조지맹왕 아가씨의 부모는 임신한 딸을 죽이려고 하다 내쫓는다. 우여곡절 끝에 얻은 삼천비의 장원급제를 삼천선비들은 갖은 모략을 써서 방해하다 결국 무당들의 저주 담김 기구로 죽게 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종살이를 시킨 재인장재의 가족과 식솔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삼공본풀이에서는 언니들을 벌레와 버섯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부영의 “세속적 규범과 가치, 특히 유교적 윤리에 대한 반항과 대결의 의지는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 중 하나이며, (중략)… 제주도 무가에는 노골적인 언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sup>48)</sup>라는 설명으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용은 한 원시부족의 도덕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프리카 흑인 부족장이 “내 적의 부인을 훔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가(내 적이) 내 부인을 훔치는 일은 나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그림자를 밟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등의 현대인이자라면 이해 못할 원시인들의 윤리적 분별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방에서 신사의 모자를 꼭 벗어야 한다든가, 숙녀 앞에서는 시가를 피지 못하는 것 등을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46) 앞의 책, p155.

47) Johari H(1983) : 앞의 책, p1.

48) 이부영(2012) : 앞의 책, p592.

현대인<sup>49)</sup> 들의 도덕률이 원시부족이나 타문화인들, 심지어는 용 시대와 다른 매너를 지니고 사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도덕률일 수 있는가. 원시인들의 윤리코드와 현대인들의 윤리 코드를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용의 지적은 다양한 문화적 상황이 혼재된 21세기에 특히 유효하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판단의 과정이 같다는 점이지 민족이나 문화마다 다른 가치관의 우열을 따질 일은 아니다.

윤리관에 대한 이런 열린 태도는 신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개의 본풀이에 등장하는 혼전 임신, 모략, 배신, 복수, 용서 등의 윤리적 주제들은 윤리학의 가치 판단 관점이 아닌 심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도그마로 변질된 효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의 개성화를 방해하는 부모 자녀 관계,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해하는데 통속적 윤리의식과 다른 윤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윤리적 상황들은 임상에서 피분석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들, 혹은 타자성(Other-ness)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도움이 된다.

### 8) 신성한 창조적 에너지와의 조우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그리는 신성한 세계는 고등종교인 유대-기독교나 불교에서 묘사하는 웅대하고 장엄하지만 단호하게 이분법적인 천상, 혹은 천국/지옥세계와 달리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다. 샤머니즘의 우주론에는 세계의 기둥, 하늘과 땅의 통로, 우주산, 세계수 등 세계의 중심이 다양하게 등장한다.<sup>50)</sup> 선사 시대 이전부터 발효된 음식, 약초, 질병과 외상으로 인한 섬망 등과 관련된 의식의 변환 등의 경험이 반영된 것일 터이다. 고통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의식의 변환 이후 들어가는 무의식적 세계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동경이 아마도 샤머니즘이 인류 최초의 종교로 시작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시베리아에서는 샤먼(Shaman)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보모(bomoh),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라(hala), 하와이에서는 카후나(kahuna)로, 아메리카 대륙의 치페와(Chippewa) 인디안들은 통상 약초사람(medicine man)이라는 뜻

49) Jung CG(1970) : CW.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p53

50) 엘리야테 미르치아 지음(이윤기역)(1996) : 《샤머니즘》 까치, pp243-253.



을 지닌 와베노(wabeno)로 일본에서는 미코(miko)라 불리는 이들<sup>51)</sup>은 제주도의 굿판을 주재하는 심방들과 유사한 의식을 최근까지도 주재해 왔다.

그 중에서도 북미의 수(Sioux) 족의 유명한 신화에는 아홉 살에 혼수상태에 빠져 두 명의 남자가 그를 구름 위로 인도하는 환영을 보는 주제가 나오는데 본풀이의 저세상 체험과 아주 유사하다. “동서남북의 말”이라는 이름의 적갈색 말을 타고 구름위에서 자신의 여섯 조상을 만난다. 이 여섯 조상이 각각 블랙 엘크에게 싸움을 해결하고 치유를 행하는 성자로 만드는 힘을 주어 인디언의 길인 “성스러운 붉은 길”로 되돌아오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도와주었다.<sup>52)</sup> 이들 기적은 자아가 팽창된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치유나 이적(異蹟)을 넘어서는 새로운 저 너머의 신성한 세계, 즉 누미노제와의 조우의 이미지에 가깝다. 자기애적 세계에 빠져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해 자신을 헌신함을 요구하는 신화이기 때문이다.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에서 칼선 다리, 애선다리, 등진다리, 조심다리, 청소와당, 흑수와당 등은 하늘과 땅의 통로로서 누미노제 혹은 새로운 세계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초공본풀이의 불도땅,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 삼공본풀이의 마통이 밭들은 우주산, 혹은 천상의 공간과 흡사하다. 배좌수의 배나무, 수레멜망약심꽃 등을 피우는 꽃나무는 세계수의 계열에 속할 수 있다. 배나무에 오르는 것은 북아메리카에서 존재하는 나무를 오르는 입무의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53)</sup> 옥황상제의 부름은 카리브 샤만의 천상계 여행 오스트레일리아 포레스트 강 유역 종족의 죽음과 재생, 천계로의 상승 의식의 단순화된 형태일 수 있다.<sup>54)</sup> 초공 본풀이에서 세 아들이 어머니인 지맹왕 아가씨를 찾아 살리는 장면, 이공본풀이에서도 역시 할락궁이가 어머니 원강암을 부활시키는 장면, 삼공본풀이에서 눈먼 부모의 치유를 돕는 장면들은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주술적 치료 장면의 상징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씻김굿, 넋들임, 푸다시, 두림굿 등의 비넴풀이가 치병

51) Covell AC(1983) : *Ecstasy : Shamanism in Korea*, Hollym International Corp., Elizabeth and Seoul, p18.

52) 김머맨 래리 지음, 김동주 옮김(2001) : 《북아메리카 원주민(Native North America)》, 창해, 서울, p131.

53) 현용준(1980) :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서울, p131.

54) 현용준(1980) : 위의 책, pp133-139.

곳에 속하고<sup>55)</sup> 본풀이의 내용에도 이러한 신성한 치유의 상징이 다양하게 들어 있다.

본풀이의 신성성은 또한 인간들의 창조성과 연결된다. 초공 본풀이에서는 아이들이 양쪽 겨드랑이와 가슴에서 탄생한다. 부처의 탄생설화나 창세기의 이브의 탄생,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나 디오니소스 신화의 탄생장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신성성의 탄생은 육체를 넘어선 혼의 세계라는 점을 암시할 수도 있고, 겨드랑이와 가슴이 심장을 둘러싼 장부란 점에서 심장이라는 신성한 장기에 대한 강조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어머니의 속곳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네 번째 아들이 무당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3이라는 숫자를 완성하는 4란 숫자의 비밀을 암시한다.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에 3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미 폰 프란츠 등이 강조한 창조적 숫자인 3의 상징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폰 프란츠는 “숫자 2가 단순히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자(monad)의 반절 이거나 혹은 두 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성을 띠고 있는 대칭적 측면(the symmetry aspect of the one-continuum)”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숫자 2가 지적으로 실체화(hypostatize)되고, 미분화된 원초적 하나(undifferentiated primal one)와 대면해야 양극성 속의 대칭적 축과의 통합과정으로서 3이라는 숫자가 비로소 등장한다.<sup>56)</sup> 갈등 혹은 대립하는 상황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하는 상징이다.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강아지의 변신인 거북사자, 참새, 고깔 귀와 장삼자락, 배, 팔죽, 이공 본풀이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얼레빗과 메밀 범벅, 꽃, 삼공 본풀이의 마 등의 소도구들은 하나씩 들여다보면 모두 일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창조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강아지는 인류의 친구이자 인도자, 영험한 거북이는 각각 장수하는 동물로 물과 바다를 왕래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다. 참새는 일상에서 자주 보는 평범한 새이고, 고깔 귀와 장삼자락, 배, 팔죽, 메밀범벅 등은 높거나 신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주인공들이 신으로 변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소도구들

55) 현용준(1980) : 위의 책, pp439-450.

56) Von Franz ML(1974) : *Number and Time : Reflections Leading toward a Unification of Depth Psychology and Physic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p64.

이다.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차원은 꼭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서천 꽃밭의 꽃감관과 다양한 꽃들은 세경본풀이 같은 다른 한국의 신화 세계에서도 등장하는 중요한 신화소이고 마를 캐는 마통이 역시 농경시대의 곡신과 연결된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찮은 꽃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찮은 마가 변신해서 금이 되고, 더 나아가 아주 하찮은 인간들이 신이 된다는 설정은 농경시대의 창조성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연금술의 기본 철학인 하찮음에서 존귀함을 끌어내는 노고와도 맞닿는다.

### 9)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중심으로

모든 신화와 종교적 의례에는 “세계가 태어나 쇠퇴하고 소멸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전제된다.<sup>57)</sup> 하이데거는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인 미래로 나아가는 동시에 탄생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거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각자의 인간이 삶을 근원적으로 반복(wiederholen)하게 되어 현재를 또 다른 측면으로 체험하는 것이라 했다. 이런 경험은 본래적 현재, 즉 순간(augenblick)이 시작되면서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일성과 전체성”<sup>58)</sup>으로 확장되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본풀이 역시 신들의 탄생과 소멸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성과 전체성의 우주를 펼쳐 보인다. 본풀이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아마도 탄생과 인생, 그리고 죽음의 과정들을 신들의 세계에 투사해 펼쳐 보면서 삶이 주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무한한 시간 앞에 겸손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의 닫힌 운명, 그러나 저세상에 대한 열린 비전(vision)을 인정하는 이른바 고등종교의 종교적 체험과 다르지 않다. In inceptum finis est! 시작은 곧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끝은 다시 시작을 성화시킨다는 순환론은 불교의 연기론에만 국한되는 세계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했다 다시 생성되는 모든 존재의 비밀이다. 또한 소우주(microcosmos)인 인간의 개인적인 인생사 역시 크고 작은 기쁨과 고통이 생겨나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소멸해 가고 또 다른 과제가 찾아오는 시지포스 신의 처지와 같다.

세 본풀이는 이런 과정을 민중들의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게 구체화 시켜 준

57) 엘리야데 미르치아 지음, 이재실 옮김(1998) : 《이미지와 상징 : 주술적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까치, 서울, p85.

58) 정동호 외(2012) : 《철학, 죽음을 말하다》, 산해, 서울, pp208-209.

다. 갈등으로 인해 헤어지고 떠나는 원심성으로 시작해 다시 존재의 시원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심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갈등의 시작인 부모에게 버림 받는 상황과 옥황상제의 부름이 한 개인에게 모두 일어나는 것은 원심성과 구심성이 동시에 시작한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옥황상제는 도교의 신이지만, 한국의 사머니즘은 옥황상제를 천상계의 신성한 신으로 대체한다. 옥황상제는 염라대왕과 함께 다양한 이유로 살아 있는 이들을 호출한다. 천상이든 지하든 저승세계로 가는 길은 다리, 강, 바다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초공본풀이에서 네 개의 다리를 건너는 장면, 청수와당, 흑수와당을 건너는 장면이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천리동이, 만리동이에게 메밀을 던져주는 장면, 무릎과 잔등 목에 차는 물을 건너 서천꽃밭에 다다르는 장면, 삼공본풀이에서는 가문장 아기가 마통이가 사는 외딴 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런 지난한 과정을 의미한다. 내 존재의 시원인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이생의 과제들을 다 수행한 후, 스스로 신이 되거나 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슬람의 신비주의종파인 수피즘의 신비체험도 본풀이에서처럼 몇 가지 단계의 여정을 거쳐 초월적인 하나의 세계, 즉 존재의 중심으로 진입한다. 첫 번째 단계가 절대적 신의 세계로 가기 위해 문 앞에 서는 단계다. 두 번째가 문을 여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가 문에 들어서서 절대자와 만나 행동을 하게 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절대자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기를 단단하게 만든다. 네 번째가 그동안의 죄를 정화하고 좋은 습관의 결실을 이룬다.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은 습관들이 삶의 원칙(principles)이 되어 절대자로 향한 길의 기초를 만든다. 여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는다. 일곱 번째는 다양한 영성경험을 하게 된다. 여덟째는 존엄한 영성의 단계다(sanctity). 영적인 힘이 구체적으로 육화되고 선한 인간 본성을 다시 되찾는 단계다. 아홉 번째는 작은 자아를 버리고 절대적인 신성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열 번째 단계는 신안에 존재하고(subsistence in God) 신이 끝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중심에 신이 존재하는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다.<sup>59)</sup>

현용준은 “초공은 무조신, 이공은 서천꽃밭 주화차지 신, 삼공은 전생 인연신”<sup>60)</sup>으로 분류했는데, 무조신은 무당의 기원이지만, 혼령과 저승을 관장하는

59) Bakhtiar L(1976) : 앞의 책, p97.

60) 현용준(2007) : 앞의 책, p28.

영적인 존재의 시원으로, 서천꽃밭 주화차지 신은 자연과 저승을 관장하는 물질과 혼의 시원으로, 삼공은 인간관계, 시작과 끝, 순환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1)</sup> 무조가 창조의 시작이라면 주화차지는 욕망이 관장하는 이승의 여러 우여곡절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인연으로 소멸했다 재창조되는 것은 삼공, 즉 전생인연신의 영역이다. 우리의 삶과 우주를 주재하는 신들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비유와 상징들은 인간세계의 행과 불행 같은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 천착하는 존재론적 영역까지 확장된다.

#### 4. 세 본풀이의 상징이 분석에 도움이 되었던 임상 증례

그렇다면 이런 신화적 모티프를 임상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필자의 임상 예를 보자. 30대 초반의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이 가져온 꿈을 보자. 그녀의 어머니는 6살 때 신흥종교에 빠져 집을 나가고 9살 때는 아버지마저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다. 고아원에 가야하는 처지였지만, 4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고모가 동생과 함께 그녀를 키우기로 결정해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그녀는 기초수급비와 아르바이트로 대학원까지 마친 후 현재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분석상황에서 가져온 꿈이다.

“언니 셋과 함께 있는데 큰 언니가 누워 있는 내게 일어나 화장품을 바르라고 해서 왜 내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바르라 하고 대들었다. 언니들 셋이 나에게 비난을 퍼부었고 그동안 내 잘못들을 지적했다. 전에는 시키는 대로 하다가 처음 내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무섭고 화나고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다... 큰 언니가 갑자기 내 편을 들어 주었더니 둘째 셋째 언니가 더 심하게 대하면서 ‘너는 상처받으면 자다 오줌을 쌀 것이다.’라고 저주하듯 말했다. 나도 같이 화를 내니 언니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울기 시작하고 나도 같이 숨이 넘어갈 것

61) 제주도의 신령의 위계는 옥황상제(하늘차지신), 지보스천대왕(땅 차지신) 산신대왕, 대서용군(바다차지신) 서산대스(절차지신) 맹진국할망(산육신), 홍진국대별상, 서진국마누라(마마신)날궁전, 돌궁전(일월신), 채스 시왕(시왕의 사자), 맹감(맹부사자) 세경(농축신), 군웅, 일월조상(일족수호신) 성주(가옥신) 문전(문신) 분향 토지관(마을 수호신) 영혼, 혼백 (모든 조상신). 칠성(부신, 풍농신) 조왕(부역신), 오방토신(방위 및 집터신), 주목지신, 정살지신(출입구 신) 울담, 내담지신(울타리 신) 놀굽지신(날가리 신), 칠원성군(수복신) 신인구삼신(어린이 사혼 차지한 신) 칙도부인(변소의 신) 등으로 질서있게 정서되고 있다(현용준, 앞의 책, pp28~29).

처럼 울다가 잠이 깨었다.”

이 여성의 성장과정은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본풀이에 등장하는 무조신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 언니들은 본풀이에 등장하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녀들 역시 부모의 사랑에 갈급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기도 했다. 언니들이 정서적으로도 강박해서 실제로 이 여성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꿈속에서 그녀는 언니들과 일단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고, 진정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탐색해간다. 이런 여성의 노력을 폄하하고 과거로 다시 퇴행시키는 역할을 언니들이 현실에서처럼 꿈속에서도 하고 있지만 내담자는 상담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씩씩하게 개척하기 시작했던 여성이다. 상담을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 상황 모두에서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라고만 보지 않고 언니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보여주었다. 특히 언니들과 함께 우는 장면이 담긴 꿈에 대한 작업을 통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언니들의 고통도 공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또 다른 꿈의 한 부분은 본풀이나 다른 신화에서 보여주는 성장과 성숙의 여정이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던지시 암시해준다.

“...무리들이 나누어 각각 맡은 일들을 처리하고 목적지에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나는 할 일을 마친 뒤 목적지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탔다(병원 분위기와 같은 곳이었으며, 환자들의 외출을 도와주는 것 같기도 했다). 각자 큰 트렁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승강기는 금빛으로 매우 고급스러웠고 우리는 1층으로 가야하는데 2층에서 멈추고 다시 13층, 9층 등에서 내려오다가 멈춰서 우리가 타면 내려가지 않아도 다시 올라갔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계단을 통해 목적지로 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멀어서 승강기를 다시 기다리다 결국 계단으로 내려왔다. 목적지를 찾아가려니 바람이 심하게 불고 너무 멀어 보였다...”

승강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의식상황의 목표가 바뀌어 이번에는 내면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무의식의 요구를 암시한다. 승강기는 고급스러웠지만, 타기 전의 분위기는 병원이라는 점은 이 여성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의 상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빛의 승강기를 가난과 싸워야 했던 여성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세속적인 배금주의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현대의 젊은 여성으로서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고려해 볼 때 내면에 숨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높은 가치와 연결된 탈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세 명의 언니들로 상징되는 인간적인 갈등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과제(opus)들은 때론 한 인간을 지옥의 세계로 인도하지만, 지난한 고통을 견디며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 재탄생되는 신성한 영역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아직 분석 초기이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자신의 목적지가 너무 멀어 보인다고 고백했지만, 어린 나이에 헤쳐 온 그녀의 영웅적 삶의 궤적을 볼 때, 누미노제와의 만남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피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신화를 만나는 작업은 내담자에게뿐 아니라 분석가가 피분석자와 외부 세계를 만나면서 보다 강하고 참을성 있게 만들어주는 경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의 내면적 성숙 단계가 꿈에서처럼 아직은 질서정연하기 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현실의 인격적 성숙 역시 순서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왕좌왕하면서 혼돈스런 과정과 불확실의 미래를 오랫동안 견뎌야 할 것이다. 본풀이 속 여정도 이 여성의 꿈처럼,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결코 매끄럽고 세련되지는 않다. 오히려 황당하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묘사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연의 힘에 담겨 있는 통합과 치유의 상징들과 만나게 된다. 비합리적인 장면들이 가득 담긴 꿈과 신화를 만나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현실세계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직면을 넘어선 치유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 결 론

화자인 무당이 자신의 이야기를 엮고 자신의 감정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당은 신화를 전달하는 주재자인 동시에 또한 그를 감상하는 인물이고 또 다시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창조적 과정을 겪는다. 블랙 엘크와 같은 큰 메디신 맨(medicine man)들의 조상을 만나는 것과 달리 본풀이를 풀어 놓는 무당들은 의식세계에 머물면서 정형화된 형태로 신화를 전승한다. 본풀이에 참가하는 사람들 역시 무당이 이야기하는 상황과 예술적 배열에 감탄하고 공감하면



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한다. 망아상태에 빠져 황홀경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샤머니즘의 전형적인 조건으로 보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는 치유를 담당하는 메디신맨과 신화를 전승하는 다른 이야기꾼들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격식이 필요하기 하였다. 담배, 고기 같은 음식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두 족의 경우는 반듯이 누워 이야기를 듣고 사이엔 족은 땅을 평평히 고르고 손으로 몸을 쓸어내린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위와 같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도 있지만, 들소 가족에 상징이나 실체의 형상을 그려서 부족의 역사나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다.<sup>62)</sup> 그러나 유럽인들의 원주민 말살정책으로 그 흔적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제주의 심방들이 민중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존재였지만, 중앙에서 임명된 제주목사이래 중앙정부의 미신타파 운동으로 끊임 없이 박해와 홀대를 받고 그 흔적이 사라져 갔던 우리의 과거와 유사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무가를 구술해 기록한 여러 신화학자들의 활약으로 후학들에게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열어 준 것이다.

무가는 이렇게 민족과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집단의 무의식과 의식에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축소판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무의식적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본풀이의 감동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다른 예술장르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분석심리학에서는 확충이라는 심리적 기법을 이용해 신화의 힘과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심리분석을 받는 내담자들은 모두 개인의 신화에서 신성한 존재들이다. 때로는 배우자나 애인에게 배신당하거나 버림받고, 때로는 부모의 학대나 유기에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친지, 동료, 이웃들에 대한 배신감, 분노, 고립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본풀이의 주인공들이 겪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여정을 말해주면서 당신의 상황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원형적 상황의 한 변주라 이야기 하면 큰 통찰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무속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전통 신화가 갖고 있는 깊은 지혜를 펴 올려 함께 나누는 결과일 것이다. 카렌 암스트롱은 중

62) 현용준(2007) : 앞의 책, p123.

교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 라고 말한 바 있다.<sup>63)</sup>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들을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세속적인 자아의 욕구에만 머물지 않고, 신성한 세계의 상징을 이해하고 체화하며 새로운 단계로 성장한다면, 기복적인 단계에서 이기적인 욕구만 강조하는 일부 고등종교의 신자들 보다 훨씬 더 성숙한 종교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서양 기독교적 전통을 비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할 종교가 화석처럼 경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sup>64)</sup> 화석화된 현대 한국 종교의 의례들이 때론 신자들의 삶 전체까지 화석화시키는 것을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는 우울증에 빠져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교에 귀의했다는 가면성 우울증 환자들, 윤리적 태도는 완전히 부정확한 채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잘되어야 한다는 가족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느님이 우리 가족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믿는 착각에 빠진 이들, 근본주의에 빠져 포용과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태도는 잃어버린 채 파괴와 폭력만 휘두르는 자칭 종교인들은 특히 초공, 이공, 삼공 본풀이의 근본정신인 화해와 용서 그리고 통합의 세계를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삶의 현장에 뿌리를 둔 생생한 의례는 죽어가고, 삶으로, 행위와는 유리된 계산된 종교행위만 남아 있는 시대다. 즉각적인 물질적 만족을 얻는 퇴행적인 샤머니즘만 남아있고, 자연과 영적인 세계와 조화를 이루던 원래 샤머니즘의 정신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무속 역시 근대화, 물질주의와 서양 중심주의의 팽창과 함께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있는 조짐도 보인다. 무가의 미학적 성취를 완상하는 것, 역사적 사회적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병리와 치유에 대해 샤머니즘이 보내는 메시지를 깊이 숙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가로 전해지는 신화들은 무당의 역량에 따라 변주되어 전해졌지만, 꼭 필요한 고갱이는 그대로 남아서 후세의 마음에 여러 울림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무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본풀이 역시 급격하게 일반인들의 관심

63) Armstrong K(2006) :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beginning of Our Religions Tradition*, Random House, New York, xvii.

64) 하영미(2014) :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과 철학》, 서광사. 서울, p216.

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잊혀져가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심리적 과정과 현실적이지만 풍요로운 상들이 다양하게 직조된 장편 서사 속에 녹아 있는 국문학적, 문화인류학적, 역사적 사회적 유산임에도 그대로 놓아 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뿌리인 창조신화들이 현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뿌리와 이웃에 대한 책임방기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좌표를 찾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의 신화를 모른다면 어떻게 방향설정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황당하고 부박할 뿐 아니라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노고일 뿐이다. 본풀이의 신화소나 상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되살리는 작업이 그만큼 절박하고 꼭 필요하지만, 심리적 이해와 분석과 함께 신화 그 자체에 대한 엄청난 분량의 주석과 해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 소고에서는 그와 같은 치밀한 작업을 하지는 못했다. 보다 엄정하고 치밀하게 다루지 못해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다리게 된다.

## 참고문헌

- 괴테 요한 볼프강(정서웅 역)(2009) : 《파우스트 1》, 민음사, 서울.
- 김만중(정규복·진경환 역주)(1996) : 《구운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서울.
- 김영희(2015) :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제 30권 2호 pp111-144
- 짐머맨 래리(김동주 역)(2001) : 《북아메리카 원주민(Native North America)》, 창해.
- 박영선(2010) : “민담 <내 복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제25권 제 2호 통권 제42호.
- 에라스무스 데시테리우스(강민정 역)(2008) : 《바보 신 모리아, 어리석은 현자들을 비웃다 : 우신예찬》, 서해 문집. 서울.
- 엘리아데 미르치아(이윤기역)(1996) : 《샤머니즘》 까치, 서울.
- \_\_\_\_\_ (이재실 역)(1998) : 《이미지와 상징 : 주술적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까치, 서울.
- 이광자(2014) : “원천강 본풀이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심성연구》 제29권 제1호 통권 제48호
- 이부영(2012) :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 정동호 외(2012) : 《철학, 죽음을 말하다》, 산해, 서울.
- 하영미(2014) :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과 철학》, 서광사, 서울.

- 황명숙(2015) :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제30권 제 2호
- 현용준(1980) :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서울.
- \_\_\_\_\_ (1992)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서울.
- \_\_\_\_\_ (2007) :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제주.
- Armstrong K(2006) :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beginning of Our Religions Tradition*, Random House, New York.
- Bakhtiar L(1976) ; *Sufi : Expressions of the mystic quest*, Thames and Hudson, London.
- Boucher S(1999) : *Discovering Kwan Yin : Buddhist Goddess of Compassion*, Beacon Press, Boston.
- Campbell J(1991) : *Creative Mythology : The Masks of God*, Penguin Compass, New York.
- Covell AC(1983) : *Ecstasy : Shamanism in Korea*, Hollym International Corp, Elizabeth and Seoul.
- Dante AB, Thomas G. trans.(1969) : *Divine Comedy*, Grossman Publishers, New York.
- Johari H(1983) : *Tools for Tantra*, Destiny Books, Vermont.
- Jung CG, recorded by Jaffe A(1961) : *Memories, Dreams, Reflections*, Pantheon Books, New York.
- \_\_\_\_\_ (1969) : CW 9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70) : CW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70)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77)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 \_\_\_\_\_ (1977)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Nami Lee(2009) : “*Reflections on Mago, a Goddess in Korea : A Creator Symbol in Korean myth*”, Shim-Söng Yön-Gu 24 : 2.
- Neumann E(1994) : *The Fear of the Feminine and other essays on feminine psychology*, Bollingen Series LX: 4,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hakespeare W & Whitworth CW, ed(2003) : *The Comedy of Error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Von Franz ML(1974) : *Number and Time : Reflections Leading toward a Unification of Depth Psychology and Physic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 \_\_\_\_\_ (1992) : *Psyche and Matter*, Shambala Publications, Inc., Boston & London.
- \_\_\_\_\_ (1995) : *Creation Myths*, Shambala Publications, Inc., Boston & London.

---

\_\_\_\_\_ (1998) : *On Dreams and Death : A Jungian Interpretation*, Open Court, Chicago and La Salle.

**Zabriskie BD**(1997) : “*Ethics*”, in *Jungian Analysis*, ed. by Stein M, Open Court, Chicago and La Salle, Illinois.

표 1. 당신본풀이 일람<sup>65)</sup>

본풀이	신의 이름	당 소재지
내왓당 본풀이	천조도, 정절상군농	제주시 용담리
칠머리당 본풀이	도원수 감찰지방관	제주시 건입리
세미당 본풀이	소천국 열두째 아들	제주시 회천리
노능당 본풀이	소천국 열한째 아들	조천면 와흘리
괴평동 당본풀이	소천국 열째 아들	조천면 와흘리
드리본당 본풀이	소천국 아홉째 아들	조천면 교래리
송당본풀이	금백주, 소천국	구좌면 송당리
괘내깃당 본풀이	괘내깃도한집	구좌면 김녕리
각시당 본풀이	옥황상제말жат돌아기	제주시 이도리
세화본향당본풀이	백죽도 금상님	구좌읍 세화리
서귀본향본풀이	부르뭇도, 고산국, 지산국	서귀읍 서귀리, 동흥리
철성당 본풀이	관청할망	서귀읍 서귀리
토산일뤼당본풀이	토산일뤼한집	표선면 토산리
토산여드렛당본풀이	토산여드레한집	표선면 토산리
호근이어드렛당본풀이	제산국하로산	안덕면 감산리
개당할망본풀이	개당할망	안덕면 사계리
하원당 본풀이	최진국 아들	한림읍 동명리
상창하르방당본풀이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	안덕면 상창리
감산창천일뤼당본풀이	일뤼중조	안덕면 감산리
색달리본향본풀이	색달리동백자하로산	중문면 색달리
드람지괘본풀이	중문이하로산	중문면 중문리
하천본향본풀이	육섯도항거님	표선면 하천리
항덕본향본풀이	알가름서물한집	조천면 하천리
와산불똥당본풀이	옥황상제말жат돌아기	조천면 와산리

65) 현용준(1992) : 앞의 책, pp22-23.

표 2. 본풀이의 종류와 신의 명칭과 그 기능<sup>66)</sup>

본풀이	神名	직능
천지왕본풀이	대별왕, 소별왕	저승차지, 이승차지
초공본풀이	초공(본맹두, 신맹두, 삼맹두)	巫祖
이공본풀이	이공(할락공이)	서천꽃밭꽃감관
삼공본풀이	삼공(가문장애기)	전상차지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 구천왕할망, 대별상 마누라	産育神 幼兒死靈차지 마마신
차사본풀이	강님	차사
지장본풀이	지장애기	?
스만이 본풀이	스만이	冥府使者
세경본풀이	조청비	농신
문전본풀이	녹디생인 (남선비의 말남) 남선비 여산부인 (남선비의 처) 노일제대귀일의 딸 (남선비의 첩)	문신 정주목 · 정낭의 신 조왕신 廁神(변소의 신)
칠성본풀이	칠성	富神
원천강본풀이	원천강	?

66) 현용준(1992) : 앞의 책, p21.



Shim-Sŏng Yŏn-Gu 2017, 32 : 1

〈ABSTRACT〉

**A Brief Study on the Meanings  
of Three Shamanic Rituals(Chokong/Euigong/  
Samgong Bonpuri) in Jeju Island from Jungian Perspectives**

Nami Lee\*

This essay interpreted and analyzed 3 Bonpuri (shamanic rituals) of Jeju Island from Jungian perspectives. These rituals (Chokong, Euigong, and Samgong Bonpuri) includes myths about gods who have both anthropomorphic and supreme aspects. 3 myths showed significant psychological motifs such as hieros gamos, parental complex, ethics, numinose, creativity, and return to the origin. Compared to other religious worshipping ceremony such as shamanism in North America, sufism, and tantraism, similar psychological motifs are discussed. Understanding and amplifying the psychological symbols and process related these motifs may help analysis to be more meaningful and revivifying the human psyche especially in distress and sadness.

**KEY WORDS** : Jeju-shaman rituals · Creation myth · Analytical psychology.

---

\*Jungian Analyst, Dr. Lee's Analysis Clinic, Korea